

승승장구 역량강화 프로젝트

11.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이해(1)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해하기

관련 법률 알아보기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 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 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개발

최근 들어 학교폭력은 흉포화, 조직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의 범위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저연령화되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부적응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거나 위험, 잠재적 요인을 지닌 학생들에 대한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함으로써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선진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와 대처방법을 알려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을 뿐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발달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개발된 프로그램은 방관자나 동조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학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7년부터 일반 학생들의 폭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감이나 갈등해결과 같이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학교문화와 풍토를 건강하게 변화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발생을 촉발하는 개인 및 환경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학교폭력 발생을 억제하는 개인 및 환경의 보호 요인을 강화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적대적 귀인양식, 분노조절 등 부정적인 특성을 감소시킨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을 돕는 긍정적인 개인 특성인 공감과 관점채택 능력을 발달시킨다. 고
셋째, 학급 내 갈등을 예방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또래 중재자를 양성한다.
넷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학급 규칙을 마련하고 실행계획을 세운다.
다섯째, 학교 내 폭력문화에 대한 예민성과 의식을 고양한다.
여섯째,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2)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구성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또한 교사 및 학부모 대상으로도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등 총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학생 기본 자료와 심화 자료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이번 차시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활동, 공감 활동, 의사소통 활동 등의 기본 활동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먼저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활동에 알아보도록 하자.

3)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활동

(1) 프로그램 개발 배경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 괴롭힘 자살사건 등 학교폭력 문제가 자주 발생, 심각해지자 2012년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부에서 1년에 2차례씩 실시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학교폭력 피해율이 12.0%로 2011년 18.3%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학교폭력 피해 후 고통정도

의 경우는 33.5%에서 49.3%로 높아져 피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통은 과거에 비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로 2017년 최근 5년의 피해응답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공표와 학교현장에서의 예방교육 강화 등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이 인식이 점차 바뀌고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파악되었다. 2017년 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을 보고도 모르는 척 한 학생은 전체의 20.3%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신고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에 대해 방관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방관이유에 대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더 괴롭힘을 당할까봐'라고 응답한 학생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인식 부족과 목격 후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함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단순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보다는 이타심, 공동체 의식 등 개인화 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인 중학교 학생들은 심리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거나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친구들로부터의 압력과 같은 환경 요인에 의해 쉽게 학교폭력에 가담하게 된다. 이 경우, 학교나 학급차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 학교폭력을 유발시키는 다양한 환경 요인들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폭력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제시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학교 내 폭력문화에 대한 예민성과 의식을 고양시키고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프로그램의 목표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이 무엇이고 학교폭력의 유형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또한 가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며,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로서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방법을 습득하고 사회적기술학습지를 학습함으로써 또래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프로그램의 특징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개념 등을 재미있는 퀴즈 게임을 통해 알아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모두가 학교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직접 역할극과 미디어 활동을 통해 그들의 속마음을 느껴보고 대처 방법까지 알아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 유인물과 강의식으로 전달되는 교육이 아닌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도록 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차시별 프로그램은 본시 활동프로그램과 학교현장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 활동 프로그램인 사회적기술학습지를 첨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차시별 상세한 수업지도안과 더불어 PPT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가가 아닌 선생님들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프로그램의 구성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프로그램은 총 4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차시별로 구성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 1차시는 '학교폭력 멘사에 도전하다'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예방퀴즈와 선택활동으로 찌질이 올림 픽을 통해 학교폭력의 정확한 개념을 잡아가도록 하고 있다.
- 2차시는 '입장바꿔! 역할극~~'이라는 주제로 '신체로 하는 학교폭력' 역할극과 '언어로 하는 학교폭력' 역할극을 안내하고 이를 모둠별로 직접 해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 선택활동으로 '사과에도 법칙이 있다'라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 3차시는 '너라면 어떻게 할래?'라는 주제로 각 모둠별로 학급 내 갈등상황 대처법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 및 모둠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도록 하고 있다. 선택활동으로 '나는 방관자인가? 방어자인가?'를 통해 방관자와 방어자의 차이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발과 고자질의 차이'를 통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로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게 된다.
- 4차시에는 '학교폭력 예방홍보신문 및 3無 3行 제작'이라는 주제로 모둠별로 학교폭력예방 홍보신문을 제작하고 이를 발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선택활동으로는 학급이 실천할 수 있는 3無 3행신문을 제작하고, '비폭력평화학급(학교)만들기 선서식'을 통해 학급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다짐활동을 하게 된다.

(5) 연계 가능한 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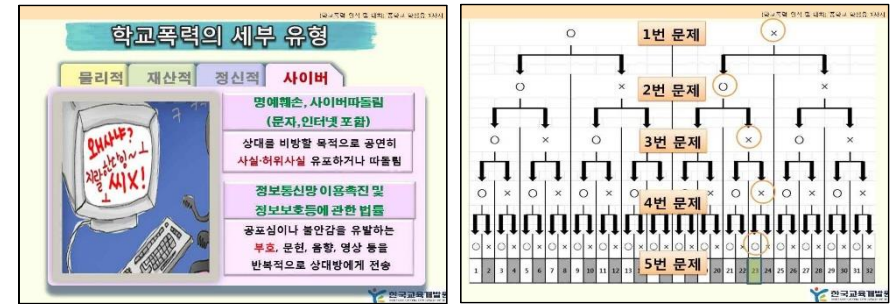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1~4차시 모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연계하여 지도.활용 할 수 있지만 특히 담임교사와 함께 자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진행된다면 교사에게는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며 사전 학교폭력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 표에 나타난 연계 교과 및 단원은 2009 개정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에 유의하자.

차시	연계 교과	연계 단원
1	도덕	친구관계와 도덕, "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협동 평화적 해결과 폭력예방
2	도덕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배려 마음의 평화와 도덕적 삶
3	국어	이야기와 갈등 소음을 줄이자
4	국어	매체언어와 광고 인터넷 속에 갇힌 청소년
	미술	창의적 작품 활동

(6) 주요 활동 내용 알아보기

총 4차시 구성 중 1차시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멘사에 도전하다'라는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

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상품은 고가의 상품보다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퀴즈를 풀기 전 학교폭력의 유형과 학교폭력 관련 동영상 시청한 후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2~3명의 학생에게 얘기해 보도록 한다. 이후 학교폭력예방 퀴즈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방법과 사다리 OX판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학생 각자에게 활동지와 코딩된 사다리 OX판을 나누어주고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도록 안내한다. 문제를 다 풀 후에는 짝끼리 바꾸어 채점을 한 후 본인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모두 맞춘 친구에게 준비한 상품을 나누어 주도록 한다. 사다리 OX판 메뉴는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게 편집 사용 할 수 있으며, 한 학급 학생수만큼 코딩하여 사용하면 교과 시간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 맞춘 친구에게는 상품이 주 어짐을 알려주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만약 다 맞춘 친구가 없을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객관식 만점과 주관식 1개 맞춘 친구, 객관식 만점 친구 등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물을 주어도 좋다.



선택활동으로 '찌질이 올림픽'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근거 없이 남의 말을 옮기는 일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학생들과 함께 내용을 함께 읽고 이해하지 않는 부분은 설명하고, 개인별로, 학급별로, 모둠별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활동 전 사례를 미리 보면 방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난과 폭력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2~3명 정도 발표해보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남을 괴롭히고 상처 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됨을 주지하고, 적어도 우리 학급에서는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약속으로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하고 다음 차시 예고를 끝으로 수업을 마친다.

4) 공감 활동

(1) 프로그램 개발 배경

중학생은 제2차 성징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불리는 시기를 거치며 삶의 주기 중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를 겪으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변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어 불안을 경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애쓰게 된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동료 의식을 형성하고, 가족들보다 친구들의 생각과 의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동료들의 인정에 열광한다.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학업스트레스를 겪게 되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또한 이 때는 자아중심성이 다시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자신과 다른 관점을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과 다른 타인에게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공감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심각한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공감이란 인지적, 정서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추측하여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능력 및 타인이 표현하는 정서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서적 공감은 타인을 배려하고 약자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는 능력,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표정과 말투, 태도 등으로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이 능력이 결여되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반응 태도를 취하지 못해 집단 따돌림의 표적이 되기 쉽고 타인을 지배하고 학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한겨레신문 ‘낮은 공감능력 학교폭력을 부른다.’에 따르면 가해 경험이 있거나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해와 피해를 함께 경험하는 아이는 평균 공감지수가 그렇지 않은 아이의 60%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학교폭력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공감능력 향상 교육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2) 프로그램의 목표

중학생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 학생이 자신과 다른 또래친구들을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포용하며 나아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등 학교라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여 올바른 가치가 자리 잡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들 속에서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학교 학생들이 갖는 공감적 특징을 이해한다.
- 다양한 감정에 대해 인지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생겨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 다양한 욕구에 대해 인지하고 상황에 따라 갖게 되는 감정에 필요한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감정을 읽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능력을 키울 수 있다.

(3) 프로그램의 특징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감』에 집중하여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 및 욕구를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공감 프로그램은 기존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영상 시청식, 강의식 등 일방적인 전달 형식으로 되었던 것과는 달리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 감정, 의견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여 학생 참여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 프로그램의 구성

공감 프로그램은 총 4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시별로 구성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 1차시는 ‘나의 마음은 이런 거야’라는 주제로 먼저 릴레이 그림그리기를 통한 공감의 의미를 파악과 구체화하는 활동을 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감정카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만들어진 감정카드를 활용하여 ‘온몸으로 말해요’라는 퀴즈 활동을 통해 감정카드에 있는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면 친구들이 맞추도록 하여 공감을 실천해 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

● 2차시에는 ‘나는 이래서 그랬어’라는 주제로 2명씩 짝을 지어 공감-비공감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비공감의 언어와 그 표현을 찾아보며 생활 속 공감 경험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 중 공감 받지 못했던 경험을 나누어 봄으로써, 공감 받지 못할 때의 문제를 이해하는 활동과 공감적-비공감적 표현을 포스트잇에 적어 정리 한 후 공감적-비공감적 표현 공간에 붙이는 활동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황카드 뽑아 상황에 따라 2명씩 짝지어 역할극을 하도록 하여 공감-비공감의 상황에 대한 소감을 나누어 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

● 3차시에는 ‘너도 그런 거구나’라는 주제로 ‘도둑맞은 이름’ 그림책 읽기를 통해 주인공의 감정을 추측해보고 책 속 인물의 감정을 파악한 후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즉흥극을 해 보도록 한다. 또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친구에게 포스트잇에 공감 표현을 적어 붙여주고 소감을 물어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고민을 포스트잇 등에 적고 한 명의 친구에게 붙이도록 하여 친구의 고민을 내 고민처럼 나누는 공감샤워 활동을 하여 서로를 응원해주는 활동을 하게 된다.

● 4차시에는 ‘실제 상황에서 행동하기’라는 주제로 3인의 법칙 동영상을 보고 실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영상 속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 찾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인물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역할을 정해 영상 장면 그대로 재현하기 활동을 하되, Stop - 끼어들기 -다르게 하기(변화주기)를 하여 장면에 변화를 주고 소감을 나누는 활동을 하게 된다.

(5) 연계 가능한 교과

공감 활동은 학교폭력예방 교육시간, 창의체험활동 시간, 도덕, 국어, 음악, 미술 등의 교과시간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계 가능한 교과 단원은 ‘도덕’의 인간다운 삶의 자세,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 학교생활 예절 등을 주제로 한 단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어’ 교과에서는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활동하는 [듣기 말하기]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음악, 미술’교과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노래와 그림 등과 연계해 표현하는 활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6) 주요 활동 내용 알아보기

총4차시 구성 중 3차시에 해당하는 ‘너도 그런 거구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도입부분에 몽크의 그림 ‘절규’를 제시한 후 그림의 제목을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왜 절규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학생 들이 상상해 보도록 한다. ‘도둑맞은 이름’이란 책을 보여준 후 내가 만약 주인공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추측해 보도록 하고, 책 속의 주인공에게 공감하는 말을 포스트잇 등에 쓰도록 하여 모둠별 전지에 붙이도록 한다. 교사는 미리 책속 인물의 캐릭터를 전지에 크게 그려 미리 준비하면 좋다. 모듬별로 1명을 주인공으로 정하도록 하고 상황극을 해 보도록 안내한다. 주인공 역할을 하 는 학생에게 ‘주인공이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에 대해 혼자말로 상상해 보도록 하고 상상한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나머지 모듬원들은 주인공에게 공감하는 말을 포스트잇에 적어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며 붙여 주도록 한 후 주인공의 기분과 캐릭터의 이름을 정하도록 한 후 그 이유에 대해 말해보도록 한다. 이러한 공감샤워 활동을 함으로서 공감을 높이고 이해도를 높여가는 데 활동의 목적이 있다.

이어서 나누어준 활동지에 본인의 학교생활에 관한 고민을 포스트잇에 여러 개 적도록 한 후 그 중 가장 큰 고민 하나를 색깔에 옮겨 적어 두 번 접은 후 고민 상자에 넣도록 한다. 색지를 다 넣은 후 대표 1명이 상자에서 색지(고민)를 뽑아 자기 고민처럼 이야기 한 후 전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 후 모든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 공감하는 말을 포스트잇에 적도록 한다. 고민을 이야기 한 친구의 몸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모든 활동이 끝나면 박수 세 번으로 마무리한다. 자신의 고민을 적을 때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적는지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며, 친구에게 도움 되는 말을 하려 할 때 부정적인 발언은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게 좋다. 학 급 상황과 고민의 정도에 따라 활동지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심각한 고민을 가진 학생의 경우 자신 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하므로, 그런 경우에는 활동지 없이 바로 색지 또는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진과 포스트잇으로 ‘공감은 000이다’로 정의내리는 활동을 하고 마무리 한다. 학생들이 쓴 내용을 게시판에 붙여 학급 내 공유하고 마음에 드는 표현에 공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스티커를 들고 다니며 자연스럽게 스티커가 없는 학생의 작품에 붙여주도록 하 면 좋다.



몽크의 절규



공감샤워 장면

5) 의사소통 활동

(1) 프로그램 개발 배경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은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즉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의 부족, 소통과 감성능력의 부족은 학교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다양한 연구보고서에서 살펴보면 중학생의 대인갈등 대처방식에 효과가 있었고, 의사소통 능력이 친근감 향상, 학생간의 인간관계 향상, 대인간의 갈등해결방식과 자기표현 능력,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자아존중감과 또래 관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국내·외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효과적인 자기표현과 상대방의 말에 대한 경청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훈련하기 위한 요소로 자기표현하기, 경청하기, 문제해결하기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각각의 요소들로 활동들을 구성하게 되었다.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은 그 특성상 또래집단 내 소속감과 유대감이 매우 강하고 고정 관념과 편견적 태도를 많이 보이며 이상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비판적 태도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에게 합리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학교 내 갈등과 오해, 그리고 그로 인한 학교폭력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목표

중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과 다른 또래 친구들을 이해하고 특징적 차이를 긍정 적으로 수용하여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더 나아가 그들이 부모, 교사와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평화롭고 즐거운 학교생활 속에서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또래 집단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를 학생 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 힘을 인식한다.
-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내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잘 듣기의 힘’을 체험한다.
- 대화는 주고받는 것임을 인식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말하기 방법을 익힌다.
- 자신에게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관계 경험을 해결해보는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운다.

(3) 프로그램의 특징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일방적 강의식, 영상시청 등의 수동적, 주입식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학생이 직접 활동하고, 고민하고, 협력하고, 참여하는 모듬별 활동 형태의 학생 주도적이란 것과 현장 교사들이 직접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주로 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적용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장 교사가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일회적 행사로 끝나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존 인성 프로그램에서도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학교폭력 예방에서 의사소통 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학교폭력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또래관계에서 의사소통 시 걸림돌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앞서 언급된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존에 개발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제적인 해결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4) 프로그램의 구성

전체 총 4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차시별로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1차시는 ‘좋은 말 vs 나쁜 말’이라는 주제로 듣기 싫은 말 빙고 게임을 하며 상처받는 말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어서 상대방과 말로 상처 주거나 상처 받은 경험을 함께 나누고, 힘이 되는 말은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너 괜찮아? 나 속상해!’라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들어보는 ‘듣고 싶은 말 샤워’라는 활동을 하고 마 마지막으로 MBC 실험다큐 ‘고맙습니다와 짜증나’의 비밀을 시청하고 긍정, 부정의 말이 가진 힘 인식하도록 한다.

●2차시에서는 ‘마법의 듣기!’라는 주제로 상대방이 내 말을 최대한 듣지 않는 상태에서 말해보기 연습과 상대방에 내 말을 최대한 잘 들어주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체험을 하게 함으로서 적극적인 경청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마지막으로 앵무새 대화와 공감대화를 통해 적극적 경청을 연습해 보게 된다.

●3차시에서는 ‘어떻게 말해?’라는 주제로 여러 종류의 말하기 방법을 익히게 된다. 나 전달법과 비폭력대화의 의미와 방법을 확인하고 나 전달법 모델링(솔리언 또래상담) 영상을 시청하며 나 전달법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나 전달법, 비폭력대화를 실습을 하게 된다.

●4차시에서는 ‘이렇게 말해봐!’라는 주제로 내 마음의 표현을 통해 이해결 과제와 상한 맘을 치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자신의 부탁, 거절 경험을 떠올려보고, 어떻게 하면 더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일상에서 흔히 있는 상황에 대해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 함으로서 내 마음 제대로 표현하면서 거절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친구에게 상처받았던 경험을 생각해 보고, 하고 싶은 말과 듣고 싶었던 말을 적어보도록 하여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등을 알게 된다. 마지막으로 말의 힘 2(MBC 실험다큐) 젊음의 단어, 노인의 단어를 시청하며 말이 행동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마무리 하게 된다.

(5) 연계 가능한 교과

2009 개정교육을 중심으로 중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국어, 도덕, 가정,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주로 활용이 가능하다.

관련 교과	내용
국어1	<공부의 원리> 영역 중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주제로 한 단원에서 듣기와 말하기 방법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국어2	<맥락의 이해와 활용> 영역 중 ‘공감적 대화’를 주제로 한 단원에서 언어적 의사소통뿐 만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의 강조,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공감 하며 듣고 말하기를 하는 방법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국어3	<말하는 이와 말하기 방식> 영역 중 ‘대화나누기’를 주제로 한 단원에서 대화의 목적에 따른 말하기 방식과 함께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다.
도덕1	<우리·타인과의 관계> 영역 중 ‘친구관계와 도덕’을 주제를 다룰 때 진정한 우정을 만드는 자세에서 상처 주는 말의 사용이나 친구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태도 등을 다루며 활용해 볼 수 있다.
도덕2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영역 중 ‘마음의 평화와 도덕적 삶’의 주제를 다룰 때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의 내용을 친구관계에서 상 처받은 경험과 내 마음 표현하기 활동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가정1	<청소년의 이해> 영역 중 ‘청소년의 성과 친구관계’의 주제를 다룰 때 바람직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내용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가정1	<청소년의 자기 관리> 영역 중 ‘청소년의 시간과 스트레스’의 주제를 다룰 때 스트레스 원인 중 친구 요인과 연계하여 스트레스 받은 경험과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주요 활동 내용 알아보기

총 4차시의 활동 중 3차시에 해당하는 ‘어떻게 말해?’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말의 한계,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움을 잘 알 수 있는 귓속말 전달 게임을 한다. 먼저 각 줄의 앞 사람이 나와서 각자 받은 지시문 1분 정도 읽고 지시문을 제출한 후, 자리로 돌아가 다음 사람에게 귓속말로 지시문 내용 전달하도록 한다. 전달받은 사람은 그 다음 사람에게 순서대로 귓속말로 전달한 후 제일 마지막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칠판에 자신이 들은 말을 쓰도록 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 활동을 통해 귓속말로 말을 전달하는 과정의 문제점 등을 발 표하고 어떻게 하면 본인의 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나 전달법’과 ‘비폭력대화’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이러한 표현 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알도록 한다. 솔리언 또래상담-나 전달법이라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나 전달법의 효과에 대해 함께 알아보게 된다. 세 가지 사례가 제시된 활동지를 통해 현재 내가 말하 고 있는 방법과 나 전달법으로 말하는 방법, 비폭력대화로 말하는 방법 등을 적도록 함으로서 ‘나 전달법’과 ‘비폭력대화 방법’을 사용하여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세 개의 사례가 골고루 다 읽힐 수 있도록 사례 선정 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모둠별로 2절지를 한 장씩 나눠주고 작성

하게 해도 된다. 발표 시 배우기 전의 방식과 나 전달법, 비폭력대화 방식 두 가지로 역할극을 간단히 해도 좋다. 마지막으로 듣기, 말하기의 타이밍이라는 활동을 통해 상대방의 말을 들어 주어야 할 때와 내 마음을 먼저 표현해야 할 때를 알아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

나 전달법과 비폭력대화로 말하기	
나 전달법	1. 문제가 되는 친구의 행동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2. 친구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3. 친구의 행동 때문에 생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다. (※ 내 마음을 전달한 후에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비폭력 대화	4.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내가 바라는 것을 친구에게 부탁한다.
☆ 사례1: 친구가 체육복을 빌려간 후 되돌려주지도 않고, 다른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자기는 모른다고 한다. 체육복을 가져갔다는 친구에게 가보니 상의는 모르겠다고 하고 하의만 지저분한 상태로 돌려주었다. 나는 너무 화가 났다.	
① 내 방식으로 말하기	
② 나 전달법으로 말하기	
③ 비폭력대화로 말하기	

활동지 예시



비폭력대화 제시 화면

[참고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2018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7

한국교육개발원,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중학교 학생용(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개정판), 2018

[참고 사이트]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 <http://stopbullying.kedi.re.kr>